

지 상 범 석

“보시는 베푸는 것 아니라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51)

釋難文

(석난문) ②

楞嚴經曰云何賊人
능엄경 왈 운하적인
假我衣服 神變如來 造種種業
가이의복 비판예래 조종종업

능엄경에 이르기를, '어떤 도둑놈이
나(부처)의 의복을 빌어입고 여래를 팔
아 명리나 탐하면서 가지가지 업을 짓
는고' 하시니

非濟世而能也 地獄種子爾
비제세주항야 지옥종자이
假佛魔而下生 出得頭來
종요미혹하생 출득두래

(그런 중들은) 중생을 고해에서 건져
줄 배, 항구가 아니라 지옥종자니라
비록 미혹보살이 하생한다한들 (그때
에) 어떻게 머리디밀고 세상에 나오라

身已陷鐵籠 百刑之痛 非一朝一夕也
신이함철외 백형지통 비일조일석야
若今爲之者 或百或千
약금위지자 혹백혹천

今反真以丁錢 示民於情不然
금반책이정전 시민어승불연

나라에서 승려제도를 두는 것은 본래
(왕실과 국가의)복을 빌기 위함이지늘
오늘날엔 도리어 병역의무를 돈으로
갚게하여 중이 (제구실못함을) 백성들
에게 보여주니

使吾徒 不足待之至也
사오도 부족대지지야
只如前日 育王難 永安嵩
지여전일 육왕런 영안송

우리들로 하여금(스님다운) 대접을받
지 못하게 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만 저 전날에 육왕런(육왕사의 회
련선사)과 영안송(영안사의 계승선사)
과

龍井淨 靈芝照
용정정 영지조
一狐之腋 自餘 千羊之皮 何足道哉
일호지액 자여 천양지피 하족도재

용정정(용정사의 원장선사)과 영지조
(영지사의 원주율사)는 한마리 여우의
겨드랑이 가죽이요 나머지는 천마리 양
의 가죽이라(양가죽은 구하기 쉽고 여

부처님 의복 빌어입고 명리 탐하면
미혹보살 하생 한다해도 구제 못해

(그때는) 이미 몸은 지옥에 빠져 백
가지 형벌의 고통이 일조일석이 아니니
라 (두고두고 계속되어 끊이지 않는다)
지금도 스님되려는 이가 혹은 백, 혹
은 천

至千萬計
지천만계
形須而已 難論其中 何有哉
형필이독론기중 하유재

심지어 천만에 이른다 하더라도
머리끄고 먹물웃 입은 모양새 뿐이라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들중에 무슨 스
님다운 스님이 있으리오

所謂齋論而罵鳴也 碌碌之石 非玉也
소위지언이봉명야 목목지석 비옥야
齋論艾榮 非眞山忍草也
소부애영 비실산인초야

이러바 수리의 날개요 봉의 울음이라
(이러바 날개지만 사납고 소리만 요란
한지라) 푸릇푸릇한 풀이라고 옥이 아
니며 썩어 우겨져도 눈덮인 산의 인동
초가 아니다(무성한 중들이 때를 만나
 많이 나오더라도 저 설산고개를 견뎌
는 참다운 스님은 아닌것이다).

國家度僧 本爲祈福
국가도승 본위기복

諸賢頌句
(제현송구) ①

於戲 佛海藏 未有今日之甚也
어희 불해제 미유금일지심야
可與智者道 難與俗人言
가여지자도 난여속인언

슬프다. 부처님 법바다에 더러운 찌꺼
기가 오늘같이 심한적이 없었으니
가히 지혜있는 자와 더불어 길을 같
이 갈뿐 속인과 더불어 말하기가 어렵
구나.

龍居士頌
방거사송
방거사 계승

但自無心於萬物 何妨萬物常圍繞
단지무심이면만 하방만물상위요

단지 스스로 만물(경계에)에 마음없
으면(마음두지 않으면)
어찌 만물이 늘 둘러싼들 방해되리오

龍眼

옛날 얘기 한 꼭지로 오늘 법문을 시작
해 보겠습니다.

옛날 경남 산청 인근의 산중에 초라한
절이 하나 있었는데 하도 오래된 절이라
비가 세고 벽이 무너져 세로 고쳐 짓지 않
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절의 주지인 묘신
스님이 중창 불사를 발원하고 지극정성으
로 백일 기도를 했습니다. 회향하기 전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한지 99일이 되는 날
밤에 스님은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백발의 노인이 황금빛 옷을 입고 나
타나 "무슨 꿈을 그리 곤하게 자느냐"며
스님을 깨우더니 중창불사는 잘 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스님이 그말을 듣고 기뻐서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고 물었지요. 백발
의 노인은 "내일 아침 관산책을 들고 산을
내려가다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시주
를 부탁하면 모든 것이 잘 될것이다"라더
니 흥연히 사라졌습니다.

꿈을 깬 스님은 기이한 꿈이란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고 새벽 일찍 관산문을 들
고 산길을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
아랫에서 건장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는
그 고을 김풍헌네 거승이었습니다. 스님은
"머슴이 어떻게 절을 중건할 시주를 하겠
느냐"는 생각에 실망스러웠지만 어쩔법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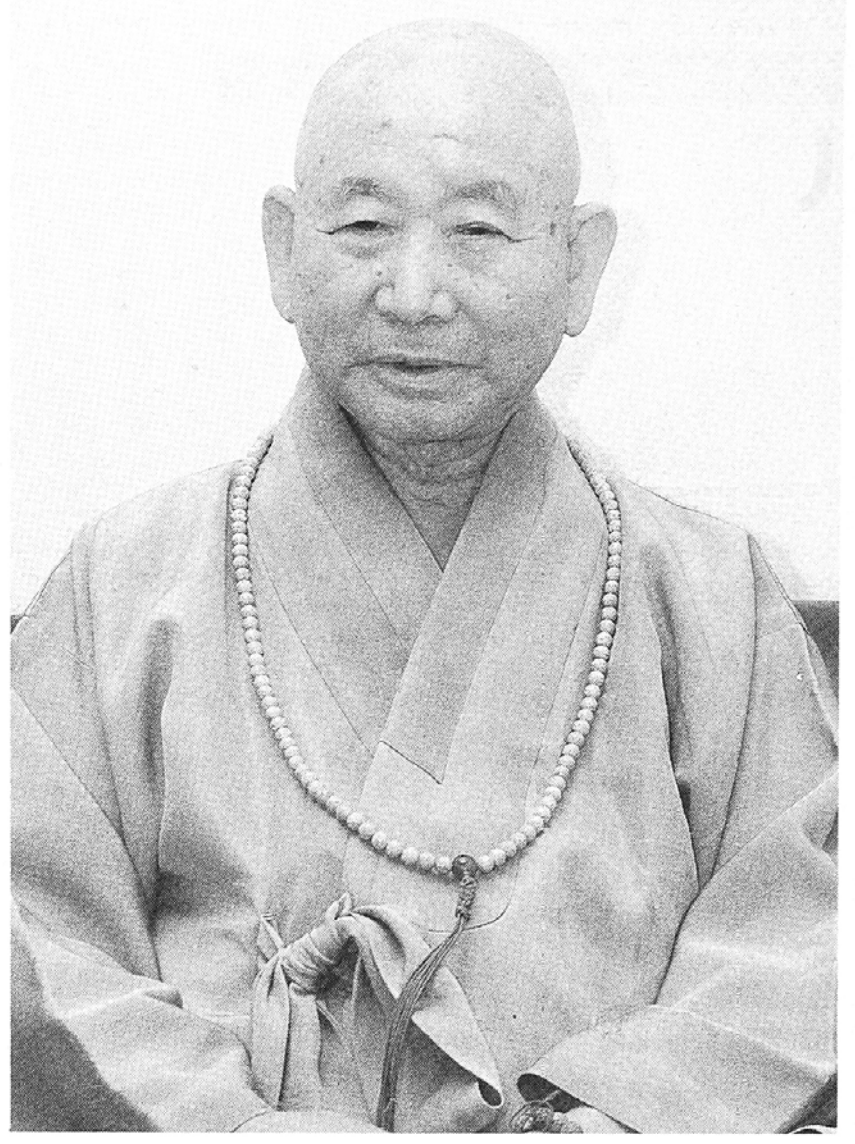
베픔은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선업을 짓는
씨앗을 뿌리는 일

이 심상치 않아 "여보게 우리절 중창 불사
에 시주를 좀 할 수 있겠는가"라며 어제밤
꿈에기까지 들려 주었습니다. 잠자코 얘기
를 들은 총각은 "술을 고쳐 짓는데 얼마가
들니까"라고 물었어. "2백냥이면 우선 대
웅전은 중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소만..."
끝말을 흐리는 스님과 달리 총각은 "2백
냥이라. 제가 10년동안 머슴을 하며 모아둔
돈이 1백 60냥 있고 주인에게 받을 세겜이
40냥이 있으니까 꼭 됐습니다. 걱정 마시고
제가 2백냥 시주하는 것으로 그 책에 올리
시죠"라며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묘신스님은 총각의 시원스런 대답이나
간발의 꿈이 모두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절로 돌아와 불사를 시작 했습니다.
총각과 약속한 열흘이 지나서 스님은 김풍
헌네 집으로 찾아 갔습니다. 총각은 어김
없이 돈 2백냥을 준비해 왔다가 스님께 바
쳤습니다. 스님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인
부를 구하고 목재를 구하라는 등 분주히 불사
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채 안지
나서 김풍헌네 집에서 사람이 올라 왔습니
다. "스님께 시주를 한 그 머슴이 복을 받
기는 커녕 앓은뱅이가 되어 골짜기를 못하고
있으니 절에서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너무 놀라 한 걸음에 김풍헌네집으

법홍스님
(원효종 종정)

- 약력
· 1915년 강원도
고성에서 생
· 23년 금강산 유
점사로 출가
· 유점사강원 출
업
· 일본 연역사 학
원전수원 졸업
· 해인사 총림 수
료
· 백만일 염불회
결성
· 원효종 종무원
장 역임



로 달려가 보니 그 머슴 총각이 정말 앓은
뱅이가 되어 있지 뭐니까. 스님의 등에 얹
혀 온 그 총각은 절에서 스님들의 간호를
받으며 재채기 했는데 이게 또 무슨 눈버
락 입니까. 절에 온지 며칠 안되어 이번에는
눈이 멀어 버렸습니다. 주지스님은 안
절부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총각은
여전히 사람총개 웃으며 "스님 제가 전생
에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그 과보를 이렇
게 받나 봅니다. 제가 죽거든 염불을 잘
해주셔서 업장을 녹여 주십시오"라고 말
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난 어느날
깊은 밤중에 집채만한 호랑이가 절을 밟바
퀴 돌더니 번개같이 총각의 방에 들어 총

각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어이가
없는 노릇이지 뭐니까. 주지스님은 너무
충격이커서 절 불사도 그만두고 함께 지내
던 스님들도 다 떠나라고 한뒤 절을 부취
버릴 작정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 놓고
불사를 하면 무엇하느냐는 생각 때문이었
겠지요. 도끼를 들고 법당에 들어가 본존
불의 왼쪽 어깨를 내리 찔렀는데 순간 스님
은 '그래도 내가 중된 몸으로 부처님상까
지 손수 부술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
도끼를 뽐으려했으나 웬일인지 깊이 박히
지도 않은 도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겁
이 난 스님은 절에 불을 지르고 집을 쟁겨
만행의 길에 올랐습니다. 절 하나 중수 못

하고 사람을 죽게 했으며 부처님상에 도끼
질까지 했으니 오죽이나 괴로움이 컸겠습
니까.
세월은 흘러흘러 30여년이 지나고 그 고
을에는 젊은 원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이
원님은 부임 첫날 회향한 꿈을 꾸었지요.
백발에 황금빛이 찬란한 노인이 나타나서
"너는 전생에 이 고을에서 머슴을 살다가
어느 절에 많은 돈을 아낌없이 시주했으나
그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 몇생을 두
고 받아야할 과보를 짧은 순간에 다 받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해 이 고을 원님이로
왔으니 그 절을 찾아 중창을 하고 묘신 스
님을 찾아 그 절에서 수행토록 하라. 묘신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

척추교정 · 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교육내용
· 목, 허리디스크, 신경통
· 관절염 · 중풍예방수술법
· 비만 관리 수술법
·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정삼수
건강연구원
입구정역
543-7306

선관단식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행법입니다.
· 개인적 복을 기어 · 공부법이 없다.
· 수련장
· 사생활, 결혼, 자영업, 직장생활전 생략
· 사생활, 결혼, 자영업, 직장생활전 생략
· 사생활, 결혼, 자영업, 직장생활전 생략
· 사생활, 결혼, 자영업, 직장생활전 생략

조립식 건물(주택)
경량 칸막이 시공
칼라 · 아스팔트 · 싱글
전화 (053) 742 - 7855
015-717 - 7792
011-532 - 8454
(주) 신 화 개 발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
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뜰히 마쳤습니다.
대한교육평가원
(수신자 부담)
080-023-4600

거승 동양화 화실
거승 철학원(운명 조인)
서울시 용산구 청라 1가동 140-3
(홍신빌딩 308호)
전화(02)3273-0081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년2회 실시
4월 · 8월
결정 국졸 · 중졸 · 고졸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木材철원방지제(갈라짐 방지)
木材방충 · 방부제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립 6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
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대한교육평가원
(수신자 부담)
080-023-4600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6년전원출제목표 → (영·수)「비디오판」
(영·수)「비디오판」
(영·수)「비디오판」